



정교회주보

제2438호

2023.9.1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르비아의 코소보 지역에 위치한 그라차니차 수도원에는 성모님께 봉헌된 유서 깊은 성당(사진)이 자리하고 있다. 6세기에 건립되었던 최초의 성당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고 그 자리에 14세기 들어 다시 지어졌다. 성당은 5개의 돔이 있으며 중앙 돔은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성당 내부 벽화는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으며 200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소피아와 그녀의 딸들
삐스피, 엘비다, 아가삐 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191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191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196
• 복음경 : 마르코 8,34~9,1 19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이유

하느님께서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생활로 증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지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축복이며 결코 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유하며, 믿음 이외에도 지식, 절제, 인내심, 거룩함, 친절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 하느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촉구한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위한 이 투쟁에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서는 약속하고 있다.(베드로 후 1,11)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보수적인 신자들과 진보적인 신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자들은, 오래된 것은 이미 시도된 바 있어서 안전하지만, 새로운 것은 시도된 적 없기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진보적인 신자들은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고, 새로운 것은 진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의견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시간은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변하지 않는 요소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리와 정신과 같은 변경할 수 없는 요소들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한다면, 그들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시대적인 요소에 영원한 권위를 부여하려 한다면 그들 역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경과 사도 바울로의 서신을 보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당대의 품행 예절과 관련된 조언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는 문제나 여성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예배의 언어와 음악, 예술, 전례 지침의 문제나 금식의 문제와 같이, 신앙 외의 부차적인 주제들은 각자가 소속된 지역 교회가 정한 바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다른 관점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 광신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자의적인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과 진리에 일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써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 사도 바울로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에페소 4,15) 살자고 권면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광신주의로 이어지는 사랑 없는 진리도, 용납할 수 없는 타협으로 이어지는 진리 없는 사랑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웃음과 유머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안식하신 그리스의 아나니아스 쿠스테니스 대신부님(1945-2021)은 언제나 우리들이 웃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은 늘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웃으세요. 우리가 웃을 때면 악마는 도망간답니다. 우울함도 사라집니다. 절망이나 낙담도 없어집니다. 나쁜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웃도록 하십시오.”

“악마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있으면 악마는 떠나가버리고 우리를 혼자 있게 놔둡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는 성인들이 도와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절망을 깨부수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웃거나 미소를 머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은 그들의 내적 자아가 처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분별력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항상 웃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미소를 머금거나 웃음을 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유머는 생명이고, 숨을 쉬는 것이고, 한 줄기 햇빛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거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웃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그런 일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나 선한 일, 자비,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보시면 즉각 달려오셔서 곧바로 도착하십니다. 마치 하느님의 119 구조대마냥!!!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평화와 힘으로 충만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을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마르코 8,34~35)



소식

■ 인천 성당 결혼 성사

지난 9월 10일(주일), 나타나엘 김도운-마리아 유예진 두분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인천 성당 청·장년회 일일 수련회

지난 9월 10일(주일), 청년회와 장년회 연합 수련회를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순례'와 '정교인이 된 신앙고백'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 전주 성당 슬라브어권 신자들 방문

지난 9월 9~10일, 로만 신부의 인솔로 23명이 새 성당과 새로 그린 벽화를 탐방하였습니다. 토요일(9일)에는 저녁 식사 다음에 석후과와 영성체성혈 전 기도를 드렸고, 주일(10일)에는 일라리온 신부와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를 드리고 오찬과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교회 묘지 관리비

성인의 가르침

마음의 평온함을 위하여

어느 수도자가 또 다른 형제 수도자와 다투었다. 그는 이웃에 사는 사부를 찾아가 이렇게 고백했다.

“사부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힘듭니다.”

“형제여, 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게. 그대 안에서 끓고 있는 정욕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네.”라고 사부는 조언했다.

수도자는 사부의 조언대로 실천했고, 일주일 후에 그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